

들어가면서

- 열왕기에 준하는 또 다른 기록—역사 다시 읽기.
- 열대기는 히브리성서에서는 '디브레 하야밈'(דְּבָרֵי הַיָּמִים, the events of the days)이라 칭하여 지난 날들을 회상하는 방식이다. 마치 구글 지도처럼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집중 조명하듯 아담으로부터 포로기 이후 공동체로 신속히 이동한다.

A. 내용

- 서론: 족보 (역대기상 1-9 장)
 - 족보: 아담에서 포로기 이후 시대까지
 - 다윗, 솔로몬 계보에 많은 관심 (역대상 3 장)=> 이 후 이야기의 주인공. 사울 왕의 계보도 실리나(9:35-44), 그는 신실하지 못한 왕으로 다윗과 대조된다(10:13-14).
 - 다윗의 계보가 여호야김을 주축으로 왕국멸망 이후에도 계속(대상 3:16-24).
 - 포로기 이후 공동체 이야기.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명단이 역대기상 9 장에 기록. 사제, 레위인, 다양한 성전 일꾼을 포함.
- 다윗 (역대기상 10-29 장)
 - 사울에 대한 평가.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것은 신실하지 못한 일이고 그래서 죽었다 (10:13).
 - 다윗에 대한 평가. 한 마디로 '이상적인 왕'=> 고로 이 그림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은 생략.
 - 다윗과 사울 가문간의 분란/내전 생략. 당근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없다.
 - 다윗의 명성에 불리한 증언이 빠져있다.
 - 우리야 아내를 범한 죄와 이에 대한 나단의 심판 예언 생략. (cf. 사무엘하 11-12 장).
 - 죄를 지은 경우 벌에 대한 언급이 없다 (cf. 삼하 7:14)=> 오직 영원한 약속만 언급(대상 17:14).
 - 가족의 분쟁사 삭제.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, 압살롬의 반역 (사무엘하 13-19 장).
 - 사무엘하 24 장의 인구조사는 사탄의 역사(대상 21:1); 삼하 24:1 에서는 '야훼의 분노'.
 - 다윗의 말년(열왕기상 1-2 장) 역시 다른 모습=> 아비삭 이야기, 권모와 술수는 빠지고,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 및 레위인과 성전 제의 조직 (역대기상 23-26 장). 예루살렘 제의 중앙화로 레위인이 아론계 사제에게 종속된다.
 - 다윗에게는 아무 대적/정적도 분쟁/전쟁도 없이 다만 하느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행할 뿐.
- 솔로몬 (역대기하 1-9 장)
 - 다윗의 경우처럼 이상화되고, 성전 건축에 초점을 둠. 다윗이 준비/시작한 것을 완성(대상 28:2-29:30).
 - 경건의 모델. 솔로몬이 정적을 제거한 일(열왕기하 2 장), 이방여인을 가까이 한 일에 대한 언급 회피. 신명기사가와는 달리 역대기는 솔로몬의 배교를 인정치 않음.
 - 성전 건축
 -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 삭제.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노동에 사용 (대하 2:17-18).
 -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분쟁에 대해서는 역대기 기자가 열왕기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지만, 그 직접적 원인인 솔로몬의 강제노동을 언급하지 않음 (왕상 12:1-19 // 대하 10:1-19).
- 유다의 역사 (역대기하 10-36 장)
 - 여기서는 유다의 분열왕국을 다룬다 (962-587 BCE).
 - 역대기는 신명기사가와는 달리 북이스라엘 역사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, 이스라엘 왕이 유다와 관련된 있을 때에만 부정적으로 평가.
 - 이와 함께, 선지자 이야기(엘리아, 엘리사)도 없다. '여로보암의 죄'는 신명기 사가의 언어.
 - 여호사밧(대하 17:1-21:1)은 방대한 개혁을 실시, '주님의 율법서'를 유다 모든 도시에 보낸다(대하 17:9). 열왕기에는 요시아 왕 때 이르러 율법서가 발견된다.

- 히스기야. 성전을 수리하고 레위인을 시켜 예전 임무 회복. 유월절을 지킴(30:1). 이것 역시 신명기 사가에서는 요시아 왕의 업적(왕하 23:22). 산헤립 침공 시, 성전에 입힌 금을 벗겨 낸 일(왕하 18:13-16)에 대한 언급? 당근 없다! (왜? 성전모독죄! 훌륭한 왕은 그런 일 안함.)
- 므낫세. 신명기 사가에서는 최악의 왕으로 예루살렘 멸망과 포로의 직접적 원인(왕하 21:1-18). 역대기도 열왕기에 기록한 므낫세의 죄를 반복해 열거하지만, 한 때 그가 회개했다고 기록(대하 33:10-13). 외경계 포함된 '므낫세의 기도'는 이에 근거한 듯.
- 요시아. 열왕기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왕. 역대기에서는 보통 (혹은 그 이하) 수준. 요시아의 죽음에 대한 평가. 바로와 싸운 일이 하느님을 거역한 것으로 해석 (대하 35:22).

B. 신학적 문제

- 다윗과의 계약
 - 다윗의 계약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석
 - 삼하 7:16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=> '네 집, 네 나라'는 다윗 왕조.
 - 대상 17:14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=> '내 집, 내 나라'는 성전.
 - 모든 역사적 사건이 제의를 중심한 인과응보 원칙=> 므낫세가 평화롭게 죽은 것—(slept with his ancestors; “열조와 함께 누우매”)—은 그가 회심했기 때문이고(대하 33:20), 요시아가 폭력적 죽음을 당한 것은 불복종했기 때문(대하 35:22). Q. 진짜 이유는 뭘까? 열왕기에서는 요시아 왕이 솔로몬의 잘못을 바로잡음(왕하 23:13). 역대기의 차별화된 신학이 본 요시아는?
- 현 제국적 지배체제에서 살아남기
 - 성전을 중심한 공동체 형성=> 제의를 잘 지키는 것이 흥망성쇠의 열쇠.
 - 현실을 직시=> 꿈과 희망의 역사 (다윗은 더 이상 정치적 리더가 아님)
 - 열왕기하 25:27-30 ²⁷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삼십칠년 곧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의 즉위한 원년 십이월 이십칠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²⁸ 선히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²⁹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³⁰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(= > 여전히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오를 것을 기대).
 - 역대기하 36:22-23 ²²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²³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(= > 더 이상 다윗 후손에 대한 언급이 없이,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YHWH 하느님의 대리통치자 역할. Cf. 사 44:28; 45:1).

결론/평가

- ✚ 역대기 사가가 새로운 역사적 자료에 입각해 집필했다기 보다는, 열왕기(대상 9:1; 대하 36:8)를 보는 새로운 시각, 곧 역대기 사가의 “신학과 이데올로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”(358).
- ✚ 다윗왕국의 재건 보다는 성전제의 회복에 관심. 페르시아 제국의 피지배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선택.
- ✚ 역대기는 히브리 성서의 마지막에 위치. 그럼에도, 크리스천의 성서적 이해에 간과되어 왔다.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눈으로 재조명함으로써, 성서의 적응력/적용성(adaptability)을 높이고, 다른 한 편으로 포로기 이후 공동체의 현실을 전통과 연결시킴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한다.

생각해 보기

히브리 성서는 역대기로 끝나며, 그 마지막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지배체제 하에서 살아남기다(대하 36:22-23). 개신교 구약성서는 말라기로 끝나며, 그 마지막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한 회복선언이다(말 4:5-6). 하나가 현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남기를 꿈꾸었다면, 다른 하나는 현 체제를 거부하는 전복적 메시지를 담는다. 유대교와 기독교 태동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극명한 대조다.